



천국에서의 하나님 예배

221. 천국에서의 하나님 예배는 외면상으로는 지상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는 다르다. 지상에서와 같이 천국에도 교리, 설교, 교회 건물들이 있다. 그곳의 교리는 본질에 있어서 어디나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높은 천국의 교리는 낮은 천국들의 교리보다 더 내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설교는 교리에 맞게 구성된다. 그들에게 집과 궁전이 있듯이(183-190장), 교회 건물도 있으며 그 안에서 설교를 듣는다. 이러한 것이 천국에 있는 이유는 천사들이 사랑과 지혜를 끊임없이 완성해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도 지상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고능력과 의지기능이 있으며, 두 기능은 끊임없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사고력은 지성에 속한 진리로, 그리고 의지는 사랑에 속한 선으로 완벽해진다.

222. 그러나 천국에서의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교회에 가거나 설교를 듣는 데 있지 않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신앙, 이타심,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있다. 교회 내의 설교는 단지 삶에 관한 문제들을 가르치는 수단으

로 사용된다. 이 주제를 놓고 천사들과 얘기한 적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지상의 하나님 예배는 단지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듣고 일년에 서너 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교회가 정한 다른 예배의식을 행하고 특별한 시간에 기도에 헌신하며 이 모든 것에 독실하게 행동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사들은 그 모든 것도 지켜야 할 외적 행위이지만, 그것이 내면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즉 교리가 가르치는 교훈대로 사는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223. 내가 예배장소에서의 그들 모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때로 예배에 출석해 설교를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 설교자는 동쪽의 강단에 선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의 빛이 뛰어난 사람들은 설교자 정면 앞에 앉는다. 빛이 덜한 사람들은 그들의 좌우에 앉는다. 좌석은 동글게 배치되어 있는데 설교자가 모두를 볼 수 있고 아무도 그의 시야 바깥에 앉지 않게 되어 있다. 들어오는 문은 건물의 동쪽, 강단의 왼쪽에 있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입구에 서 있다. 아무도 강단 뒤에 서있을 수 없다. 누가 뒤에 서 있으면 설교자에게 혼란이 일어난다. 회중 가운데 누가 의견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얼굴을 돌려야 한다. 그곳 설교의 지체로움은 지상의 설교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적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영적 나라의 교회 건물은 돌로, 천적 나라의 교회 건물은 나무로 지은 듯이 보인다. 그 이유는 돌은 진리에 상응하며 영적 나라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나무는 선에 상응하고 천적 나라 사람들은 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천적 나라에서는 거룩한 장소를 교회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 천적 나라의 예배장소는 장엄하지 않으나 영적 나라의 교회는 대체로 장엄한 편이다.

224. 나는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거룩한 마음상태에 대해 설교자 중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내면에 맞게, 즉 그의 사랑과 신앙에 맞게 경건하고 독실하며 거룩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주의 신성이 사랑과 신앙 안에 계시므로 거룩함 자체도 사랑과 신앙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사랑과 신앙을 떠난 외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나서 그는 그것이 아마 형식적으로나 위선적으로 외관상 거룩함을 가장하는 것이리라고 말했다. 또 그런 종류의 거룩함은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에서 일어나는 속이려는 (마음의) 불에 의해 점화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225. 모든 설교자는 주의 영적 나라에서 나오며 천적 나라에서는 아무도 설교자가 되지 않는다. 영적 나라에서만 설교자가 나오는 이유는 그곳 천사들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모든 설교는 진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천적 나라에서 설교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선 안에 거하기 때문이며 그 선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고 '진리가 진리임을' 보지만, 진리를 거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적 나라 천사들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교가 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로 밝히 깨우쳐지고 또 그들이 몰랐던 많은 진리로 더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자마자 진리임을 확실히 알며,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직감적으로 이해한다. 또 이해한 진리를 그들은 사랑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 진리가 자기의 삶이 되게 한다. 그렇게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단언한다.

224. 나는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거룩한 마음상태에 대해 설교자 중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내면에 맞게, 즉 그의 사랑과 신앙에 맞게 경건하고 독실하며 거룩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주의 신성이 사랑과 신앙 안에 계시므로 거룩함 자체도 사랑과 신앙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사랑과 신앙을 떠난 외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나서 그는 그것이 아마 형식적으로나 위선적으로 외관상 거룩함을 가장하는 것이리라고 말했다. 또 그런 종류의 거룩함은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에서 일어나는 속이려는 (마음의) 불에 의해 점화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225. 모든 설교자는 주의 영적 나라에서 나오며 천적 나라에서는 아무도 설교자가 되지 않는다. 영적 나라에서만 설교자가 나오는 이유는 그곳 천사들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모든 설교는 진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천적 나라에서 설교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선 안에 거하기 때문이며 그 선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고 '진리가 진리임' 보지만, 진리를 거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적 나라 천사들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교가 있다.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로 밝히 깨우쳐지고 또 그들이 몰랐던 많은 진리로 더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자마자 진리임을 확실히 알며,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직감적으로 이해한다. 또 이해한 진리를 그들은 사랑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 진리가 자기의 삶이 되게 한다. 그렇게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단언한다.